

번호 21-5

제 목	국문	몸무게와 사망률의 관계 : 강화 성인코호트에 의한 전향적 연구			
	영문	Body weight and mortality:a prospective evaluation in a cohort of middle-aged men and women in Kangwha			
저 자 및 소 속	국문	김소윤, 오희철, 강형곤 <sup>1)</sup> , 남정모, 김석일 <sup>2)</sup> , 이상욱, 김희옥 <sup>3)</sup>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중문외과대학 예방의학교실 <sup>1)</sup> , 카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sup>2)</sup> , 연세의료원 <sup>3)</sup>			
	영문	Soh Yoon Kim, Heechoul Ohrr, Hyung Gon Kang <sup>1)</sup> , Chung Mo Nam, Sang Wook Yi Suk Il Kim <sup>2)</sup> , Hee Ok Kim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Pochon Cha University <sup>1)</sup> ,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up>2)</sup> , Yonsei Medical center <sup>3)</sup>			
분 야	보건관리 ( ) 역 학 (○) 환 경 ( )	발 표 자	일반회원 ( ) 전 공 의 (○)	발표 형식	구 연 (○) 포스터 ( )
진행 상황	연구완료 ( ),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p>1. 연구 목적</p> <p>몸무게와 사망률과의 관계는 서양인들에 있어서 많이 연구가 되었으나,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론지어지지 않는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강화지역의 1985년부터 시작된 코호트 연구의 12년동안 추구된 사망자료를 통하여 우리나라 성인에 있어서 체중이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한다.</p> <p>2. 연구 방법</p> <p>이 연구에서는 1985년 2월 28일당시 강화지역의 55세 이상의 남녀 성인을 6,374명을 대상으로 같은 해 3월 건강에 대한 면접조사와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수집된 '강화코호트'자료를 이용하였다. 강화코호트에서 조사된 몸무게와 신장을 이용하여 BMI(Body Mass Index, kg/m<sup>2</sup>)를 구하였다. 사망에 대한 자료는 읍면의 사망기록과 전산입력자료를 통한 생존, 전출, 사망 등에 대한 전화, 우편, 가정방문, 이웃의 확인 등을 통하여 수집되었다. BMI가 생존에 미치는 영향은 음주, 흡연, 교육정도, 사망원인등의 요인을 통제하여, 콕스의 비례위험 회귀모형으로 분석하였다.</p>					

### 3. 연구결과

1998년 현재 남자 총 2724명 중 1147명(42.1%)이 사망하였고, 여자 총 3650명 중 962명(26.6%)이 사망하였다. 사망의 원인은 남자에서는 암이 285명으로 24.9%, 심혈관계질환이 267명으로 23.8%를 차지하였고, 여자에서는 심혈관계질환이 260명으로 27.0%, 암이 123명으로 12.8%를 차지하였다. BMI 21.0이상 23.5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연령, 사망원인, 교육정도, 음주력, 흡연력 등의 요인을 통제하였을 때, 남자에서 BMI가 18.5 미만인 경우 비교위험도가 1.950(95% C.I. 1.654 - 2.300), BMI가 18.5이상 21.0 미만인 경우 비교위험도가 1.307(95% C.I. 1.147 - 1.489)으로 BMI가 낮을수록 사망의 위험이 증가하였다. BMI가 26.0 이상인 경우도 비교위험도가 1.318(95% C.I. 1.046 - 1.661)로 증가하여 BMI와 사망의 위험과는 U자형의 모양을 띄고 있다. 여자에서도 BMI 18.5 미만에서 비교위험도가 1.668 (95% C.I. 1.405 - 1.981), BMI 18.5이상 21.0 미만의 비교위험도 1.181(95% C.I. 1.018 - 1.369)로 BMI가 낮을수록 위험도가 증가하였다. 또한, BMI 26.0 이상에서 비교위험도가 1.133으로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95% C.I. 0.942 - 1.362)

### 4. 고찰

강화지역은 서울에서 1-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 섬으로, 육지와 다리로 연결되어 있어 육지와 의 교류가 원활하나, 1985년 코호트 연구를 시작할 당시에는 도시지역과의 교류가 그리 흔하지 않은 농촌지역이었다. 남자와 여자에서 모두 교육수준이 낮았고 사망의 원인분류가 명확히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가장 많은 사망원인이 배뇨체계와 관련된 증상으로, 남자에서 368명(32.1%), 여자에서 455명(47.3%)로, 암(남자 285명, 여자 123명)과 심혈관계질환(남자 267명, 여자 260명)보다 많았다. 배뇨체계와 관련된 증상이 올 수 있는 질환이 다양하고, 이러한 사망원인은 대부분 의학적 판단보다는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에 의하여 수집된 정보일 수 있다. 병원에서 사망진단을 받지 않고 사망한 사람에 대한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겠다.

사망의 원인으로 체중이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남자에서는 BMI가 표준보다 큰 경우와 작은 경우 모두 사망의 위험이 증가하였다. 여자에서도 남자와 비슷한 양상이기는 하지만 BMI가 큰 경우의 비교위험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사망의 원인과 흡연여부, 질병의 진단으로부터의 생존기간 등 여러 요인들의 상황에 따라서 BMI가 사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하여 더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체중과 사망과의 관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